



돼지 설사에 대한 대책

- 포유 자돈 설사증

한병우

(브릿지 동물병원)

분 류

포유 기간 중 자돈들의 설사는 그 발생 일령과 증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분만 직후 즉, 분만 후 2일 이내의 설사증과 4~5일령에 시작되는 설사 및 1주령 이후의 설사 등 발병 일령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설사의 증상이 농장 내 모든 돼지들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형태, 동복 자돈 단위로 2일령 이내 설사 증상을 보이거나 이러한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자돈들이 나타나는 형태, 4~5일령에서 동복 자돈 전체가 동시에 설사 증상을 보이는 형태 및 1주령 전후 자돈들이 설사 증상은 보이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성장 형태를 보이는 것과 위축돈의 발생이 증가되는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증상에 따른 추정 관련 인자들

농장내 모든 돼지들에서 거의 동시에

포유 기간 중 자돈들의 설사는 분만 직후 즉, 분만 후 2일 이내의 설사증과 4~5일령에 시작되는 설사 및 1주령 이후의 설사 등 발병 일령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면서 산발적인 설사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 상황에서 분만사내 수유 모돈들의 사료섭취량과 활력이 저하와 모든 일령의 포유 자돈들이 구토 및 설사 증상을 보인다면 급성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염성 위장염(TGE), 유행성 설사증, 오제스키병 및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돼지 인후루엔자 또는 PRRS음성 돈군에 처음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의 빈도로 미루어 전염성 위장염과 유행성 설사증의 가능성이 높다.

분만 2일령 이내 자돈들의 설사증은 하절기에 발생빈도가 높으며 모돈들의 사료 섭취상태가 비교적 정상적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전염성 질병들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자돈들의 증상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음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유 모돈들의 행동이 약간 저하됨을 예민한 관리자는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설사증의 추정 요인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 중 변질된 사료를 섭취함과 연관되기도 하며 임신 말기 모돈에 대하여 사료 급여량이 지나치게 증량하여 급여함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령에서 7일령 자돈에서의 설사는 산발적으로 건강한 포유 자돈과 함께 동복 단위로 설사 증상을 보이는 포유 자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농장에서는 이유 육성률이 낮아짐은 물론 이유 자돈에서 위축돈의 숫자가 크게 증가되며, 특히 이유 모돈이 분만전과 동일 또는 오히려 더 살이찌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7일령 이후 설사는 설사로 위축되는 자돈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입질 사료의 급여를 2주령 이후로 지연시키는 조치 이외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설사 증상을 보이면서 자돈들이 심하게 위축된다면 콕시듐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입질 사료의 급여를 일시적으로나마 중지함이 필요하다.

대책

전염성 설사증(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증)

전염성 설사증의 경우 아무리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시행하였다고 하여도 일단 농장에 병원체가 유입되면 최소 3주간 생산량이 대한 피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병의 유입을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우선적으로 후보돈을 구입할 경우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종돈장으로부터 구입함이 권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어 예방 접종을 실시한 농장으로부터 구입시, 음성돈을 구입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모든 종돈장은 전염성 위장염 및 유행성 설사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이러한 원인체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음성 돼지만 판매함이 오히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움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경험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상황에서도 이 질병이 유입된



경우 자돈은 물론 예방주사를 맞은 모돈들도 2~3일간 사료를 섭취하지 않으며 심지어 설사 증상까지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소견은 예방접종이 대책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생독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이 농장 내에 원인 바이러스를 상재화 시킬 수 있고, 돼지 이동에 따른 질병의 확산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라도 이것이 예방 접종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연 감염되었으나 잠복기 또는 회복기의 돼지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한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 농장이 청결한 상태라면 설사증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음성 후보돈을 구입함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농장 내 들어오는 출하 차량은 반드시 세차된 상태여야만 하며, 이러한 경우라도 농장의 관리자들이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을 만지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전염성 설사증의 경우 아무리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시행하였다고 하여도 일단 농장에 병원체가 유입되면 최소 3주간 생산량이 대한 피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병의 유입을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들로는 농장 내 들어오는 출하 차량은 반드시 세차된 상태여야만 하며, 이러한 경우라도 농장의 관리자들이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을 만지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다른 농장에서 돼지를 싣고 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야생동물 특히 새가 돈사 내에 날아들지 못하도록 차단함과 함께 개나 고양이도 TGE바이러스를 최고 3주간 배설할 수 있으므로 돈사 안으로 이러한 동물이 출입함을 차단해줌이 필요하다.

2일령 이내 자돈들의 설사

전염성 설사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돈의 증상이다. 비감염성의 경우 모돈들의 사료섭취 상태가 정상적인 반면 전염성 설사증의 경우에는 크게 저하되게 된다. 또한 모돈이 변질된 사료를 섭취함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설사 자돈들의 설사 형태도 차이가 있다. 즉 바로 옆 돈방의 자돈들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장 소견을 보인다. 즉 확산되는 것 같으면서도 간혹 건강한 자돈들이 나타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경우 자돈을 실험실에 진단 의뢰한 경우 흔히 대장균증의 결과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일부에서는 모돈간 면역력 차이를 의심하고 있으나 전염성 설사증에 대한 모돈에서의 증상을 관찰해 본 경험이 있다면 면역 정도의 차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즉 설사 돈방의 모돈은 면역이 안되어 있다고 추정한다면 이러한 모돈들은 사료 섭취량 저하와 심지어 설사 증상을 보여야 한다.

모돈에서 뚜렷한 증상없이 2일령 이내 자돈들의 설사증은 모돈의 유즙 분비와 연

관될 수 있다. 특히 설사증이 복당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돈의 유방 상태를 점검함이 필수적 사항이며 유방의 변화가 세균의 감염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함이 필요하다. 대중적인 처치 방법으로 분만 예정 1주전부터 임신 말기돈에 대하여 1일 사료 급여량을 1kg수준으로 감량 급여한다.

4일령~1주령 사이의 설사

분만 후 3일령까지 건강하던 자돈들이 4일령 이후 갑자기 설사 증상을 보이면서 폐사와 위축되는 한편 모돈들의 사료 섭취량은 비교적 정상이다. 물 공급 상태가 정상적인 경우 분만사 관리자의 휴무 등을 점검하고 모돈에 대한 사료 급여 방법을 상의 한다. 일반적으로 분만 직후 수유 모돈에 대한 사료 급여량을 빠르게 증량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이외 분만 직전 모돈의 유방 상태를 다시 점검함이 그 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1주령 이후 자돈의 설사증

1주령 이상의 자돈 설사는 자돈들이 폐사 또는 위축 정도에 무게를 둔다.

이때 흔히 관여되는 원인체로 콕시듐을 들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설사 증상은 보이지만 자돈들의 활력이나 성장 형태는 정상적인 소견을 유지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 사료를 급여하고 있었다면 입질 사료 급여를 중지하는 조치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돈들의 사고율 상승과 위축 빈도가 높아진다면 돈방의 위생 상태를 청결히 하고 동복 자돈 전체에 대하여 항생제를 처

치하게 된다. 만일 항생제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항 콕시들통제를 처치할 수 있다.

기타

위와 같은 사항들은 분만사의 보온과 기타 관리 사항들이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분만사의 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었다면 또한 설사가 유발될 수 있다.

최근 일부 농장에서는 자돈들의 설사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유 기간중 모돈들에 대한 사료 급여량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이유 자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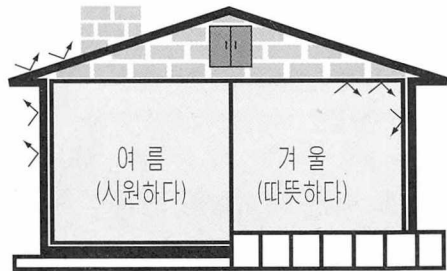
체중이 낮아질 수 있으며, 또한 이유 후 발정지연 및 다음 분만시 산자수가 저하되는 문제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분만사 관리의 어려움은 분만 14일후 1일 모돈에 대하여 8kg 이상을 급여하면서 자돈들의 설사를 예방하여 이유 체중을 향상시켜야 하는 점이다. 일부 농장의 경우에는 모돈의 사료 급여량을 증가시킬 경우 흔히 설사 증상이 증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물 공급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수유 모돈의 사료 섭취량을 분만 18일 후 1일 10kg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음이 필요하다. **양돈**

어떠한 경우든 우리농장이 청결한 상태라면 설사증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음성 후보돈을 구입함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21세기 첨단단열재 골드폼 독일형 상압식 압출보드 단열재

<단열재 선택>

- 변함없는 단열재
- 자기소화성 단열재
- 세계가 인정한 단열재
- 축사에 적합한 단열재



골드폼을 사용했을때의 효과

쾌적한 축사를 원하십니까? 골드폼이 해결해 드립니다.

축산농가에서 인기높은 이유!

1. 우수한 단열로 겨울철 사료비 절감 2. 우수한 단열로 냉난방의 에너지 절감. 3.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가.



인증번호 제2197호 419771

자매품

갈바룸, 조립식판넬
스치로폴



서울이피에스산업

전화 (0331)225-4980(代)
팩스 (0331)238-0423
휴대폰 017-360-8899